

대한민국 도시농업의 현주소 및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해

-차례-

1.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방법	3
2. 대한민국의 도시농업의 현주소	4
1) 도시농장의 현황	4
2) 도시농업 관련 도시민들의 인식조사	10
3. 도시농업의 장점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16
1) 현대의 도시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16
2)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위한 도시농업	18
4. 요약 및 결론	28
참고문헌	31
부 록	32

-표 차례-

<표2-1> 유형별 재고주택 현황	9
<표2-2> 도시농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10
<표2-3> 도시민들의 선호하는 주거공간과 귀농과의 상관관계	11
<표2-4> 도시 속에서 농장이 있다면 농사를 짓겠는가?	13
<표2-5> 도시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	14
<표2-6> 도시농업의 방해요소	15
<표2-7> 도시민들의 농촌 관련 프로그램 참여 현황	15
<표2-8> 도농교류 현황	16
<표3-1> 쌀과 밀의 각종 농업 통계자료	22

-그림 차례-

<그림2-1> 황실 배 농장의 운영형태에 관한 도식	5
<그림2-2>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	12
<그림3-1> 도시의 특징 도식화	17
<그림3-2> 농촌의 특징 도식화	18
<그림3-3> 거시적 관점에서 본 효과	21
<그림3-4> 미시적 관점에서 본 효과	21
<그림3-5> 용도 지역 현황	23
<그림3-6> 주요 농산물 1인당 소비량 추이	24
<그림3-7>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현황	25
<그림3-8> 도농교류 추이	26
<그림3-9> 농어가소득 현황	27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의 각국이 빈곤에서 벗어나면서 먹고사는 것에 걱정을 덜게 되었고, 다른 방향으로써 환경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1년 에너지 문제 회의에서 환경에 대해 카스트로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1992년 6월에 한국을 포함해 178개국 정상들이 브라질에서 이른바 ‘리우환경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지 않기로 결의를 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원칙으로써 리우선언과 아젠다21을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¹⁾ 그리고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 속에서 도시농업이 탄생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유명한 보고서인 1987년의 ‘브런틀랜드 보고서’에서는 도시농업이 도시개발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식량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며,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녹지공간을 늘리며,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하고,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²⁾ 이처럼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세계의 흐름은 21세기를 대비하여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써 도시농업이 중요한 주제로써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대국민적인 사업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적인 흐름은 경제성장의 방향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 시키자는 개념으로써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말하며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디커플링³⁾을 실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성장패턴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 양측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어 저탄소형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국토, 도시, 건물, 주거단지 등 우리 생활공간에서의 환경적인 생활 실천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녹색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하여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⁴⁾

1) Yoshida. T. (2002)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 안철환 역 p.214

2) ibid. p.293

3) 디커플링 :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 동조화되는 현상으로써 작게는 주가나 금리 등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일부 요소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4)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eengrowth.go.kr>)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세계의 흐름에 일조하게 되었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도시농업이 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 도시농업에 대한 국내적 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도시농업을 하였을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자연환경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또한 사회 문화적인 요소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해서 도시농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적 인식을 조사하고, 도시농업과 유사한 형태로써 운영되고 있는 농장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현실을 파악해 보았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분석하여 각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결 고리로써의 도시농업을 생각해 보았고, 이를 통해 현재 도시와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보았다.

2) 선행연구 검토

장동현 · 소순열(2005)은 “도시농업의 경영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시 농업을 사례로 도시농업의 경영형태를 경지면적, 전업 및 겸업농가의 비율 그리고 재배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분석하여 도시의 경지가 대부분 고립 분산되어 영세화 되어 있으며 재배작물이 무, 배추와 같은 채소에서 재배가 쉬운 상추, 토마토와 같은 작물로 대체되고 있음을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김수봉 · 조진희 · 정응호(2002)는 “환경 친화적 도시와 도시농업”에서 현재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도시계획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도시 속으로 끌어와야 됨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농업의 현황을 국외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농업의 형태와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해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장동현(2007)의 “도시농업의 영농실태와 존속 가능성 모색”에서는 전주시를 사례로 도시지역 농업인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의 지속성과 역할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도시지역 농촌에 대해 재조명을 하면서 앞으로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 속에서 농촌이 어떠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같은 저자 장동현(2009)의 “도시농업 육성의 정책적 함의”에서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그리하여 도시농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농지에 대해 계획적 관리 및 이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여기에는 도시농업의 이해당사자인 농민, 도시민, 시민단체, 농업관련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만 한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조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확

실한 인식을 알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의 도시농업 관련 논문들은 도시 속에 남아있는 농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심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 도시 속에서 농업의 정체성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것들은 도시 속에 어떻게 친환경적인 공간으로써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것에 관하여 조사하여 국민들의 도시농업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연구된 자료와 개인적인 견해를 통해서 도농교류를 통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연구 방법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도시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말농장, 서울시 속에 위치한 시티 팜,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빌딩 농장 그리고 아파트 인근 텃밭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첫 번째로 서울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말농장(중랑구 황실 배 농장)을 현지 답사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주말농장 담당 부처에 연락하여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 주말농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우리나라 주말농장의 일반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속에 위치한 시티 팜(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운상가 내 초록 띠 공원 사업의 일부분)을 현지 답사하여 농장 관리하는 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곳을 관리하는 서울 시설 관리 공단에 연락하여 전화인터뷰를 하고 각종 인터넷에 이와 관련한 기사를 종합하여 조사하였다. 세 번째로는 빌딩 농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빌딩 농장이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각종 기사를 종합하고 빌딩농장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문헌을 참고하였다. 네 번째로는 아파트 인근 텃밭에 대한 조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텃밭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현지답사를 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부에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종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9월1일-9월12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역, 지하철 및 학교에서 연령, 직업, 성별 상관없이 총 1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율은 직접 설문조사의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에 100%였지만 논문의 방향을 도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답한 10부의 설문지는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분석하고, 도시농업을 통해서 이를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고, 제시한 모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각 종 통계자료와 함께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 대한민국 도시농업의 현주소

1) 도시 농장의 현황

가. 주말농장

도시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주말농장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현재 도시 근교에는 많은 주말농장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도시민들의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도시 주변에 위치한 농가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형태를 많이 바꾸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농가에서 스스로 농사를 짓던 것에서 벗어나서 도시민들이 회원의 형태로써 일정 규모의 땅에 임대비와 유사한 형태의 회비를 지불하여 연간 임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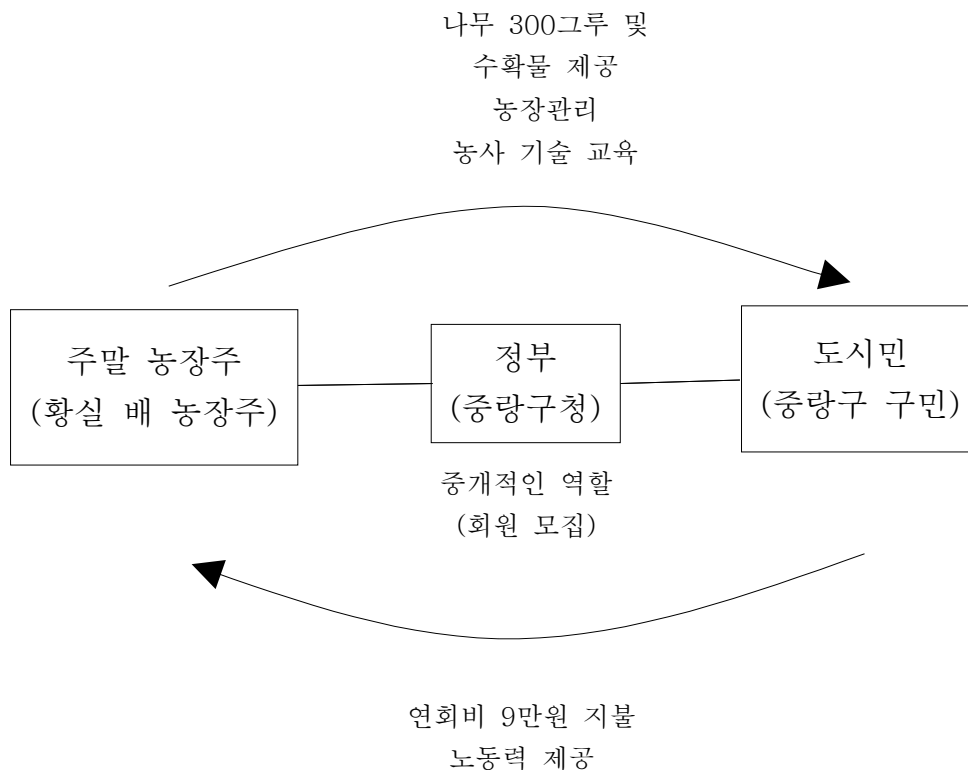
주말농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박석근 · 황환주(1996)는 “서울근교 관광농원 및 주말농장의 원예작물 재배현황과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농장주 소유의 전체 농원 면적에서 주말농장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상추, 토마토, 고추, 무, 배추, 딸기와 같은 채소류를 주로 재배하면서 농사체험 기회제공 및 자연학습 기회 제공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말농장의 운영형태에 대한 일괄적인 요약이었고 스스로 조사한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황실 배 농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주말농장이 도시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조사내용은 중랑구청의 지역경제과의 관련 팀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인터넷에 기재된 각종 기사를 통해서 자료를 종합하였다. 중랑구 황실 배 농장의 구민들의 참여도는 매우 높다. 중랑구 지역경제과에서 농장에 대해 중랑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중개자 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2009년에만 300그루의 나무에 대해서 100% 선

착순 모집하였다. 또한 이 황실 배 농장은 원래 개인 소유의 농장이므로써 개인 농장주의 배 농장의 일부였지만 중랑구에서 지역 특산물로써 황실 배를 대외에 알리며 구민들에게 전원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주말농장화를 시도한 것이다. 농장의 관리는 평일에는 농장주가 직접 나와서 관리를 하며 주말에는 구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나무 관리를 하고 구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농민들로부터 농업기술교육을 받으면서 농장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조사에 앞서 의문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주말농장을 운영하였을 때 농장주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일단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 한그루에 9만원을 지불하고 임대를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며, 수확하게 되는 배에 대해서는 그 나무를 임대한 구민에게 소유권이 있게 된다. 즉 30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에 대해서 농장주는 2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소정의 관리비와 나무 임대료로써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농장주로서는 300그루의 나무에 대해서 별도로 개인의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회원이 된 구민들은 농장을 번거롭게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서도 주말농장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여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으며, 자신의 나무에서 수확한 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즉 주말농장을 통해서 농장주와 구민들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림2-1> 황실 배 농장의 운영형태에 관한 도식



중랑구 황실 배 농장을 통해서 주말농장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처럼 황실 배 농장과 같이 정부에서 중개자 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말농장에 관한 정보를 도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혹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주말농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말농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로써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주말 농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수단으로써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일단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주말농장은 도심 속에 위치하지 않고 도시 근교에 있다. 이는 주말농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과 원활한 교통수단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는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금의 주말농장들은 개인 농장주들이 농사가 아닌 일종의 관광농원과 같은 형태로써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이 정형화된 교류의 형태를 가지고 도시와 농촌의 공생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소수의 농장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일종의 개인 사업의 형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관적으로 모든 농장이 주말농장으로 운영될 수는 없는데, 이는 대부분의 농촌이 식량생산과 자연환경 보존과 같은 사회 필수적인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며 존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애경 · 이시래 · 서정근(2000)의 “주말농장 생활원예 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주말농장에서 과수와 식량작물 재배가 재배관리와 재배기술의 습득이 어려워 저조하고 대신에 주요 재배작물이 채소류에 집중 되어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에서는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도시민들에게 쉽게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의 또 다른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도심 속 농장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심 속에 농장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이 없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시 세운상가 옛 현대빌딩 자리에 서울 시설 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티 팜이 조성되었다. 서울시의 세운 초록 띠 공원사업의 일부분으로써 공간을 조성한 것인데 초등학생들에게는 농촌체험의 장을,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의 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 하지만 이곳을 현지조사차 방문하였을 때 느낀 것은 규모가 너무나 작게 운영되고 있었고, 1000만의 가까운 시민들이 살고 있는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체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시티 팜을 관리하는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시티 팜을 시민들에게는 관광용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시설 관리공단에서 일용직으로 관리

5) 환경건설일보 2009.07.09

인을 채용하여서 농장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불우이웃돕기나 종묘제례 때 사용되며 수확된 벼를 탈곡하여 발생하는 볏짚을 종묘공원의 가로수 보호 작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자연적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사각 포트에 흙을 담아 농작물을 식재하고 있다.⁶⁾

이처럼 위에서 살펴본 초록 띠 공원 내의 도시농장은 앞으로 도시 속에 도시농장을 조성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과 예산 투자가 있어야 도심 한복판에도 도시농장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강기남 · 이종근 · 김기황 · 이만명(2007)의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공원이나 녹지 또는 개발유보지에 계획적으로 텃밭을 설치할 수 가능하며,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공간에 농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초록 띠 공원의 조성에서 문제가 되었듯이 농장을 조성하는 공간에 있어 기존의 그 공간에서 활동해왔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농장 조성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많은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는 도시 속에 농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시너지 효과들이 많다는 것이다. 뒤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다루는 부분이지만 초록 띠 공원에 있는 작은 규모의 농장에서 불우이웃에게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가로수 보호와 같은 도시 환경 부분에 이바지 하는 것과 같이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세운 초록 띠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농장은 미래에 도시에서 농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좋은 예이며 어떠한 효과를 도시에 제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적절한 시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빌딩 농장

인천 청라지구에 한창 공사 중인 미래형 농장이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가 1999년 대학원생들과 함께 환경과 인류건강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다 창안한 ‘버티컬 팜’ 모델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농장 빌딩으로 총사업비 2200억 원을 들여서 2012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층 규모의 빌딩의 지상 1~4층은 농업복합 연구개발(R&D)공간과 유통, 물류시설로 활용하고, 지하층에는 빗물과 하수를 정수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하수 정제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또 지상 5~24층에는 연중 작물 재배가 가능한 친환경 버티컬 팜이 들어서고, 25~29층에는 농업 관련 관광 체험시설, 옥상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풍력시설이 각각 들어선다.⁷⁾

이 빌딩 농장의 장점은 도시와 같이 농장조성공간에 한계가 있는 공간에서 빌

6) 시민일보 2009.07.12

7) 한국일보 2009.07.01

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개발된 도심 속에서 도시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빌딩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이동현(2006)의 논문 “일본 쌀 산업의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 준비되어 실천한 곳과 이론에 머무르는 곳의 차이”에서 보면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빌딩농장에 대한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파소나 그룹의 도쿄 본사 빌딩에서 도시의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빌딩의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업을 가깝게 느끼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알리기 위해서 2005년 2월 11일 빌딩 농장이 개장하였다. 이곳은 농업에 관한 정보 전진 기지로서 고용 창출과 관련하여 세미나와 연수를 실시하며, 재배공간은 지하 2층으로 기존의 은행금고로 이용되던 곳을 쌀, 야채, 과일과 같은 작물을 발광다이오드나 메탈 할로겐램프 등을 사용하여 1000m²의 면적에서 재배하고, 수확물은 사내식당에 제공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빌딩 농장이 도시 속에 만들어져있지 않아 도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집약적인 공간에서 도시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잡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다. 도시 속에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빌딩 농장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 안전하게 먹을거리를 자급자족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빌딩에 농장을 갖추고 있는 형태는 도시의 환경을 녹색의 자연환경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의 문제와 농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는 방향과는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빌딩 농장을 통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을 재차 고려하고 농촌과 연계하여 빌딩 농장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아파트 텃밭⁸⁾ 농장

우리나라의 도시 속에서 도시민들의 주거공간을 대부분 차지하는 곳은 아파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 속 농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 아파트에 어떻게 농장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홍정의(2004)의 “서울안의 텃밭”에서 서울 도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텃밭이 그린벨트 지역이며, 주택지역에 남아있던 텃밭도 비싼 토지비용으로 인하

8) 텃밭의 정의 : 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 있는 밭

여 작은 땅이나 화단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개발제한지역 역시 서울시의 뉴타운 계획에 따라 상업지구와 고층아파트로 개발되고 있다. 서울시청 토지 관리과(2003)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존재하는 논이 $14.445m^2$ 그리고 밭이 $17.462m^2$ 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이와 같이 도시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텃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도시 속 녹지공간을 늘려가려는 노력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미래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주거공간인 아파트를 이용하여 도시농장의 도심 속 비율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뉴타운 계획에 따라 개발되어지고 있는 상업지구와 고층아파트 단지로 조성되는 공간에 법으로 녹지공간을 상당부분 차지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그 녹지공간을 이용하여 도시농장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 단지 안에 농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을 조사해보았으나 기존의 아파트 주거 공간의 설계 자체가 그러지 못하므로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텃밭을 통해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는 찾아볼 수 있었다. 필자가 조사한 인천 검암 지구 신명 스카이뷰 검암 2차 아파트와 성남 신흥 주공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주거 공간 내에는 농장이 없었지만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아파트 관리부에서 운영하는 농장이 있었다. 일종의 주말농장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었는데 보통의 주말농장과 크게 다른 점이라면 보통 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주말농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제법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파트 인근의 농장은 도시민들의 주거 공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이다. 즉 이곳 아파트 인근 농장에서는 이웃과 함께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거리상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언제든지 자신이 농장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인근 텃밭은 따로 농장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농장에 대한 회비를 보통의 주말농장과 비슷한 정도로 받으면서 아파트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분명히 이것은 이상적인 도시농장의 형태와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할 점이 있다. 이처럼 아파트 인근에 농장을 형성할 만큼 자연환경이 풍부한 곳이 도시에는 희소하다. 대부분이 뻥뻥한 주거, 상업 공간 속에 위치한 아파트 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고 기존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시농장을 아파트 주거 공간 속에 함께 설계하려는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만약에 대부분이 개인 소유의 주택으로 구성된 도시의 형태라면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각각의 취향이 다른 개인들의 의견을 조합하고 합의를 얻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세대가 주거하게 되는 아파트라는 공간은 어떻게 설계하고 건설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아파트 속의 텃밭의 우수성을 깨닫고 앞으로의 아파트 시공에 있어 도시농장 조성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2-1> 유형별 재고주택 현황

(단위 : 천호)

구분	계(빈집제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계	다가구				
			동수	세대수			
구성비	100%	37.1%	8.1%		47.7%	7.4%	4.1%
2005	12,495	3,985	759	-	6,627	520	1,164
구성비	100%	31.9%	6.1%		53.0%	4.2%	9.3%

자료 : 국토해양부(2005)

마. 옥상정원

현재 도시에는 많은 공간에 고층빌딩들이 들어서 있다. 이런 도시에서는 농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이 분명히 부족하다. 그리하여 최근에 도시농업의 인기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왔던 건물의 옥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시작 하였다. 옥상에 농장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의 수직적인 공간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형태이며 콘크리트, 기계실과 같이 좋지 못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여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건물의 열전도율을 낮추어서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건물의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옥상이란 환경이 일반적인 재배환경보다 열악하다는 점과 인공적인 콘크리트 바닥에 조성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를 해야 할 점이 많다.

바. 실내공간을 이용한 농업

산업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간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웰빙의 바람이 불게 됨에 따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실내공간의 적절한 이용을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것이 농업이다. 요즘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의 베란다이다.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여서 베란다에 흙을 깔고 정원을 직접 만들어서 채소나

화훼류를 재배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화분에 화훼류를 재배하거나 수목을 직접 기르면서 정원 생활을 즐기는 도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위의 연구결과에서도 말해주듯이 도시 속에서 농업이나 식물의 재배를 취미로 생각하는 도시민들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렇게 실내정원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면 사회적으로는 미적인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냉난방을 조절하는 실내 공간에서는 사계절 재배가 가능하며 경제적으로는 식품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러한 실내공간을 이용하는 농업의 형태는 주로 가정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저변이 더욱더 확대되게 되면 상점이나 회사, 학교에서도 실내공간을 이용해서 도시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농업 관련 도시민들의 인식 조사

가. 도시농업이 도시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설문조사에서 도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42.2%에 해당하는 도시민들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57.8%의 도시민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표2-2> 도시농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단위 : 명, %)

	인원(명)	백분율(%)
예	38	42.2
아니오	52	57.8
계	90	100.0

여기서 살펴보면 간단한 통계자료이지만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한다. 아직 도시농업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못한 점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최근 추세에 따라 약 40%에 가까운 도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2009년 8월 26일 한국도시농업연구회를 창립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⁹⁾ 이는 우리나라에도 도시농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기관이 탄생하였다는 사실이며, 이는 앞으로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점쳐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주거 공간

현재 높아지고 있는 농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젊은 도시민들이 여가공간이 아닌 주거공간으로써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거공간으로써의 농촌과 함께 귀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젊은 도시민들의 66.7%는 앞으로 살아갈 주거공간으로써 도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3.3%의 도시민들은 농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귀농여부에 대해서는 43.3%가 귀농을 원하였고, 나머지 56.7%의 도시민들은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는 정확한 자료해석이 불가능하므로 위의 두 결과를 조합하여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통계를 도출해 보았다.

<표2-3> 도시민들의 선호하는 주거공간과 귀농과의 상관관계

(단위 : 명, %)

	인원(명)	백분율(%)
주거 공간 - 도시 귀농 - 찬성	14	15.5
주거 공간 - 도시 귀농 - 반대	46	51.1
주거 공간 - 농촌 귀농 - 찬성	25	27.8
주거 공간 - 농촌 귀농 - 반대	5	5.6
계	90	100.0

위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약 70%에 가까운 젊은 도시민들이 도시를 주거 공간으로써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 속에서 살아왔으며 그 과

9) 농민신문 2009.08.28

정 속에서 도시의 편리성을 잘 알고 있고, 그 혜택을 계속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자료에서 30%에 가까운 도시민들이 농촌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래의 <그림2-2>에서 보듯이 현재 농

<그림2-2>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 (2008)

가의 가구 수는 120만 가구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인구도 300만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4800만 명의 우리나라 총인구¹⁰⁾의 6.25%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의 총인구에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120만 가구 밖에 되지 않는 농가에 비교하면 30%의 가까운 도시민들이 주거공간으로써 농촌을 원하고 있으며, 43.3%의 도시민들이 귀농을 찬성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주거 공간으로써 도시를 선호하는 도시민들의 76%가 귀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도시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농촌으로 주거 공간을 옮겨가면서 까지 농사를 짓고 싶어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도시에서 살고 싶어도 농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24% 가까이 되는데 이 결과는 농사짓는 것 자체가 싫어서 도시에 살기 보다는 도시의 편리성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기를 포기하고 도시에 살기를 원하는 도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촌을 선호하는 도시민들의 경우 80%에 가깝게 귀농도 원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지금의 도시 속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며, 앞으로의 주거 공간으로써 농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농사를 짓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극소수의 도시민들은 농촌을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생각하며 주거 공간으로는 선호하지만 농사를 짓기는 싫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0) 통계청, “장래인구통계” (2008)

다. 도시 속 농사에 대한 선호도

직접적으로 도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보았다. 만약 도시 속에 농장이 있다면 농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55.6%의 도시민이 짓겠다고 했으며, 나머지 44.4%는 도시 속의 농장에서도 농사를 짓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위의 <표2-3>에 비추어 이 결과를 분석해보면 주거 공간으로써 도시를 원하는 비율이 66%에 이르고, 귀농을 원하지 않는 비율역시 56%에 가깝게 나타내면서 모두 절반을 넘어서는 것에 비해 도시 속에서 농사를 짓고자하는 도시민들이 의외로 55%로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농사를 짓기가 싫어서 <표2-3>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도시가 가진 많은 편리성과 사회 문화적인 인프라들이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얻게 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도시 속에서 도시의 장점을 누리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도시민이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표2-4> 도시 속에서 농장이 있다면 농사를 짓겠는가?

(단위 : 명, %)

	인원(명)	백분율(%)
예	50	55.6
아니오	40	44.4
계	90	100.0

이렇게 높은 비율로 도시민들이 도시 속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직장이 도시에 위치해서 그렇다고 대답한 도시민이 12.2%였으며, 취미로써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교육 문제로 그렇다는 경우가 11.1%로 나타났으며, 깨끗한 식료의 자급자족을 위해 도시 속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이 27.8%로 나타났다. 그리고 극소수의 6.7%의 사람들이 녹지조성과 같은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도시 속에서 농사를 짓기를 원했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두 가지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도시민들은 도시의 장점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 속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자신의 적성을 살려서 직업을 갖기도 힘들며, 자녀가 있을 시

<표2-5> 도시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

(단위 : 명, %)

	인원(명)	백분율(%)
직장의 위치	11	12.2
취미로써 농사짓기	38	42.2
자녀교육	10	11.1
깨끗한 식료 자급자족	25	27.8
환경보호	6	6.7
계	90	100.0

에는 도시처럼 잘 갖추어진 학교와 학원 등의 교육시설을 농촌에서는 바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향상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형태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존에 국민 1인당 소득이 낮을 때에는 농사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존재하였었다. 하지만 도시민들의 42.2%가 취미로써 도시에서 농사를 짓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이것이 가장 큰 도시농업의 이유였다. 이는 소득이 높은 도시민들이 회색의 도시에서 녹색의 자연환경을 쉽게 접할 수가 없으며 전원생활을 누릴 수가 없는 가운데에서 녹색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도시농업을 정서적으로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여가 수단으로써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히 농사를 지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보다는 국제 농산물 교역의 증가와 같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식료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깨끗한 식료를 생산하여 자급자족의 형태를 갖추어 한 단계 높은 삶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라. 도시농업 성공을 위한 방해 요소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일단 농업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이루어 질 수가 없는데, 25.6%의 도시민들이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았다. 또한 20.0%에 이르는 도시민들이 사람들의 관심 부족으로 도시농업 사업이 진행되기 힘들다고 보았다. 그리고 50.0%의 도시민이 농장 조성 공간의 부족이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서 필자가 생각하는 점과 일반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4.4%가 도시의 높은 땅값으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보았는데 이 의견 역시 농장 조성 공간의 부족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2-6> 도시농업의 방해요소

(단위 : 명, %)

	인원(명)	백분율(%)
정책적 지원	23	25.6
농장 조성 공간의 부족	45	50.0
사람들의 관심 부족	18	20.0
기타	4	4.4
계	90	100.0

역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간의 부족이 가장 큰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절반의 도시민들이 답하였다. 이는 개인적으로 도시농장을 조성하려면 공간과 비용의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시농장을 공공적인 측면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같이 따라 줘야지 가능하다고 보며 이는 도시농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관심

최근 들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농촌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는 많이 증가하였다. 팜 스테이와 같은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도시민들은 7.8%에 해당하였고 귀농을 준비하여 각종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귀농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4.4%였다. 그리고 일반 도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농촌 관련 프로그램은 일손 돕기 봉사활동으로써 28.9%에 해당했다. 반면에 나머지 58.9%의 도시민들은 농촌과 관련된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

<표2-7> 도시민들의 농촌 프로그램 참여현황

(단위 : 명, %)

	인원(명)	백분율(%)
팜 스테이	7	7.8
귀농 프로그램	4	4.4
일손 돕기 봉사활동	26	28.9
경험 없음	53	58.9
계	90	100.0

<표2-8> 도농교류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개, 누계)	76	123	190	274	364
체험마을 방문객수 (만 명)	93	99	134	157	236
체험마을 관광매출액 (억 원)	74	111	183	233	308
1사1촌 운동 자매결연(건, 누계)	2,404	8,677	14,498	8,114	7,581
교류금액(억 원,누계)	43	418	1,400	553	56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 농협중앙회 “도농교류 현황” (2005)

<표2-7>을 통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 관련 프로그램의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0%에 가까운 도시민들이 일손 돕기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물론 설문에 응답한 도시민들의 경우 팜 스테이나 귀농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표2-8>을 살펴보면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듯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개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객수도 2008년에 236만 명에 이르고 관광 매출액도 308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이 수치는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심이 높아 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바. 설문 대상자들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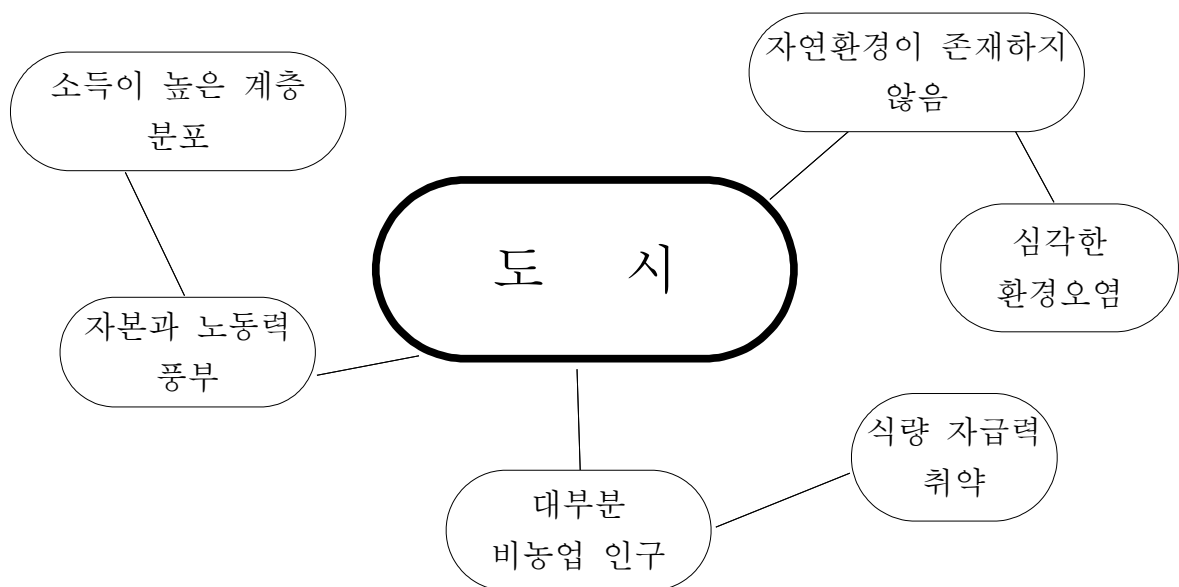
주로 높은 연령대의 설문대상자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젊은 연령대의 설문대상자들은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으며 살아온 환경의 영향으로 귀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소득이 높은 설문대상자들은 도시 속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취미로써 인식하며 참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소득이 낮은 설문대상자들은 도시 속에서 농사를 짓는 것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도시농업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참여할 의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는 연령대가 높은 대상자들 보다 젊은 연령대의 설문대상자들이 학교에서 주관하는 많은 농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많아서 더 높게 나타났다.

3. 도시농업의 장점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현대의 도시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자본과 노동력이 충분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만큼 도시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써의 도시들 대부분이 자연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 번째로 도시라는 공간이 인간이 기존에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오던 환경과 많이 다르고 도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정화기능을 상실하였다. 이는 도시 자체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가져오고 있다. 둘째로는 무분별한 도시 개발 속에서 도시 속에 있던 논과 밭이 대부분 없어짐으로 인하여 도시 속에서 식량 생산이 불가능해졌으며 대부분의 식량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국내의 농촌 지역으로부터 유통 과정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었고 이는 도시 자체적으로 식량자급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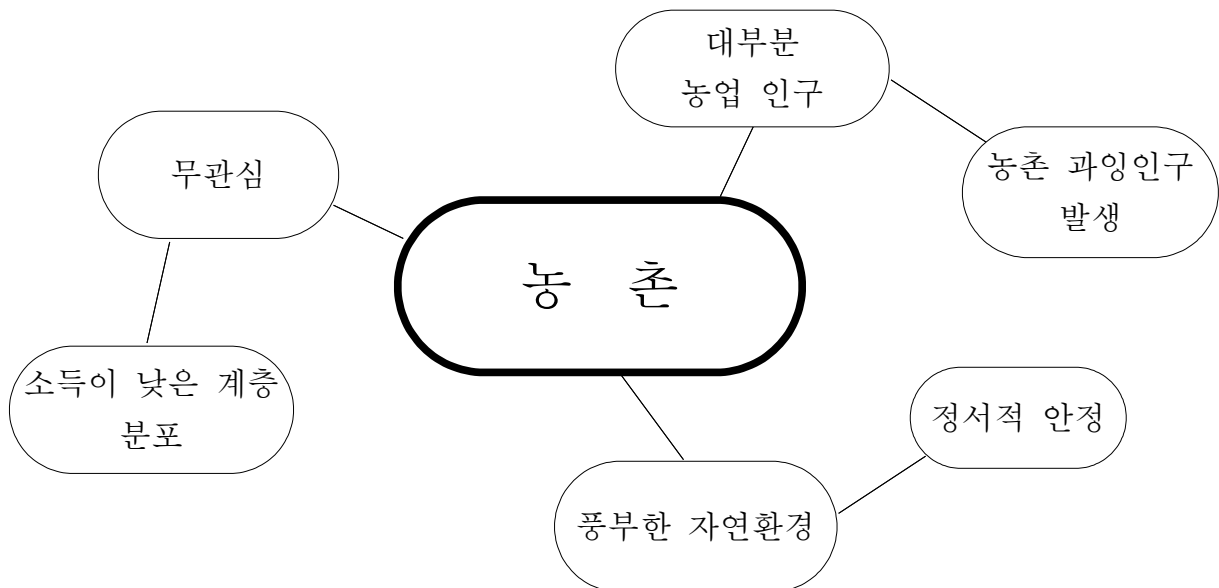
<그림3-1> 도시의 특징 도식화



현대사회에서의 농촌 역시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였다. 정부에서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농촌

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결국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런 낮은 관심 자체는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바랄 수 없게 만들었으며, 아무런 대책이 없이 흘러오다보니 농촌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낮은 소득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국민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총생산량의 비중이 많이 줄었고, 농업의 비중이 줄어 든 것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줄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민 소득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촌은 무분별한 개발 속에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도시와는 달리 친환경적인 자연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 역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3-2> 농촌의 특징 도식화



2)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위한 도시농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도시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고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이란 것이 결코 긍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기존에 존재하던 농촌이라는 사회공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많은 도시화를 겪은 나라에서는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지만 명쾌하게 문제들을 해결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도시농업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것이다.

가. 농민 “김농민” 씨의 일상

김농민씨는 농촌에서 젊을 때부터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사 전문가이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 농촌에서 도시로 집을 옮기고 일자리도 도시로 옮겼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농사밖에 없는데 대체 무슨 영문으로 도시에 와 있는 것일까? 최근 들어 정부에서 도시 속에 논과 밭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의 특정지역과 농촌의 특정 지역 간에 교류협정을 맺고 농사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농민들에게 도시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래서 김농민씨도 A군 B읍에서 농장을 경영하다가 C시 D구로 오게 된 것이다. 김농민씨의 하루는 E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농장들을 돌아보며 관리를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B읍에서 함께 올라온 동료들과 그리고 자발적으로 농장관리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함께 평일에도 농장을 관리하면서 오전을 보낸다. 이런 관리의 과정 속에서 오랜 기간 농장을 경영하며 가지게 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 주민들에게 농업과 관련된 많은 일을 컨설팅해주고 농업 관련 기술도 전수해 주어서 도시농장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힘쓴다. 이렇게 오전 일과를 마친 김농민씨는 점심 식사 이후에 자신이 농사를 지어왔던 C시 D구와 교류 협정을 맺은 A군 B읍에 있는 옛날에 함께 농사를 지어왔던 농촌주민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를 건 이유는 최근에 도시농장에서 발생한 재배적인 문제를 보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를 얻고 해결방안을 요청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C시 D구에서는 주로 도시농장에서 식량자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벼를 많이 재배하지만 교류협정을 맺은 A군 B읍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A군 B읍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소득이 높은 도시민들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현지에서 유기농으로 주요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도시농장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화를 건 후에 김농민씨는 오후에 도시농장에서 있는 도시의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 및 환경교육의 강사로써 교육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강사로써의 역할을 마치고 나서 퇴근 전에 마지막으로 도시농장들을 둘러보며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도시농장에서의 업무는 끝이 난다. 이렇게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중학생인 아들과 아내가 저녁을 먹고 있다. 농촌에 있을 때 자식교육 문제로 인하여 도시로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도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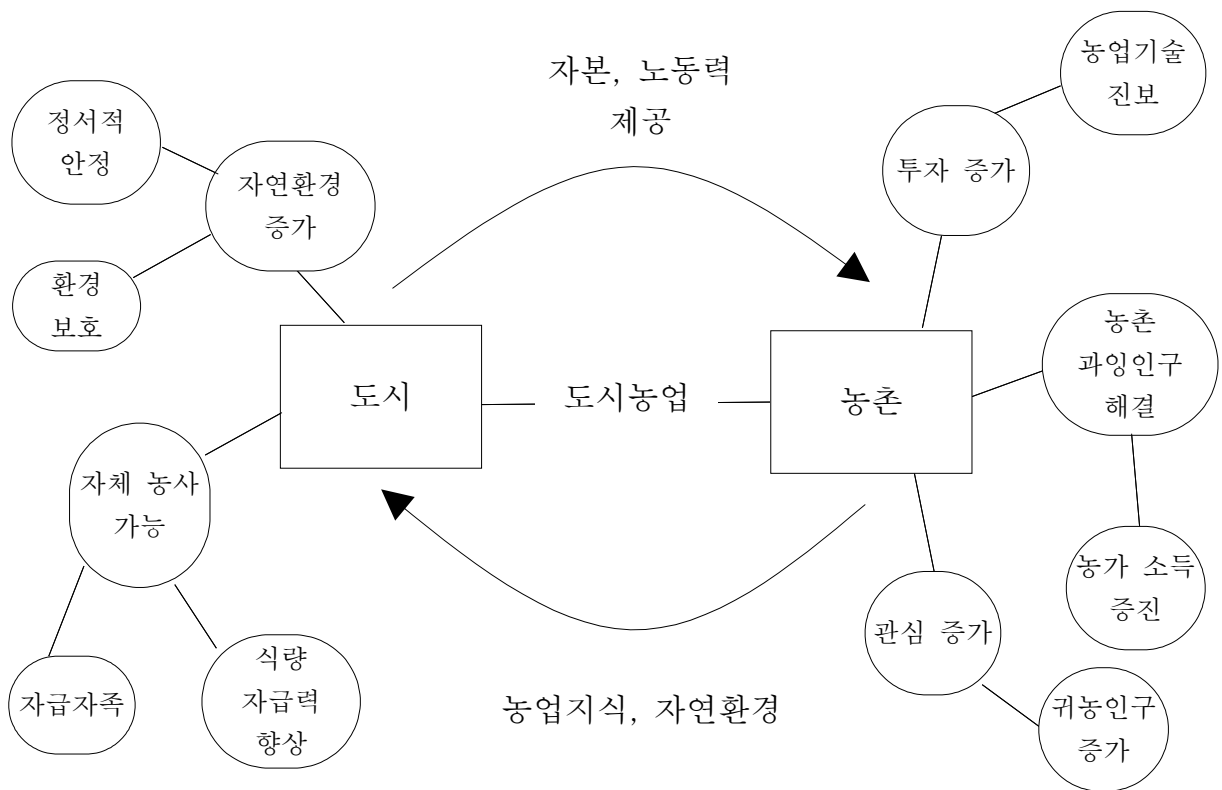
이주해 와서 양질의 교육을 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 도시민 “권도시” 씨의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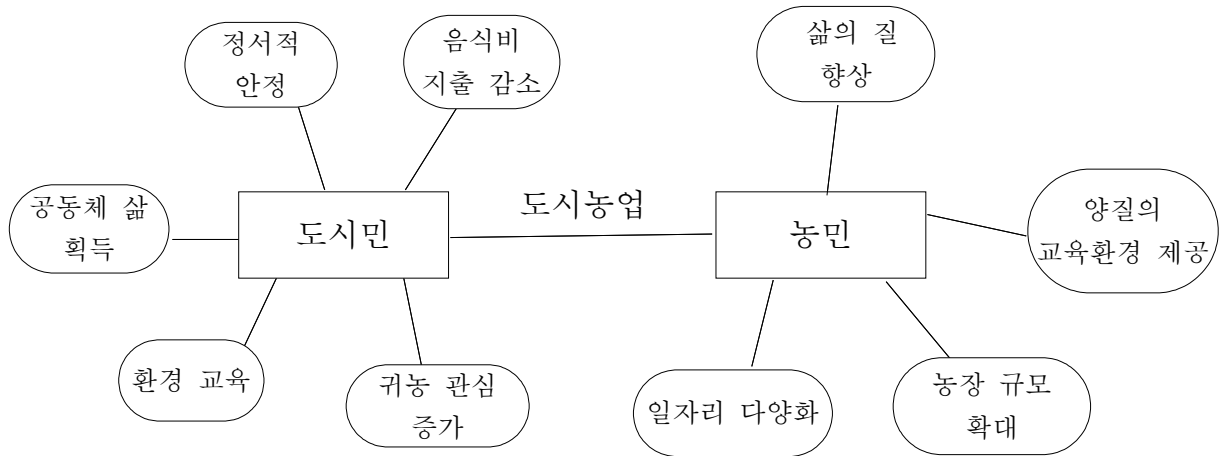
권도시씨는 도시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직장도 도시에서 다니며 15년째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권도시씨는 어릴 때부터 농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도시생활을 하는 동안 농장을 경영하고 싶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주말농장에도 참여하였었다. 하지만 집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에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고서는 가기도 힘들었으며, 실제적으로 작은 평수에 채소를 취미로 재배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농사를 짓는 다는 생각이 들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권도시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도시농장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권도시씨는 당장 넓은 면적의 논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다. 일단 직장을 가지고 있고 평일마다 출근을 해야 하는 권도시씨는 평일에는 농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농촌과 교류를 맺어서 농촌에서 직접 농민들이 올라와서 농장을 관리 해주고 농사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그래서 권도시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농장을 둘러보면서 농사가 잘 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다. 또한 문제점이 있으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농민들을 통해서 문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말에도 도시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 농사일에 참여하는 활동이 많이 있어서 어릴 때 농촌에서 보아 온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다. 기존에는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의 얼굴도 잘 몰랐는데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농장 일을 참여하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농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아내와 함께 도시 속에서 자연환경을 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권도시씨는 도시농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소득도 증가하게 되고 가계비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로는 매년 도시민들이 자금을 조성하여 교류를 맺은 농촌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된 자금은 주로 농촌의 하부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산성 확대 및 농장의 규모화와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을 위한 곳에 사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에 의해 농촌의 생산성 및 상품의 품질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어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연구된 기술이나 정보가 도시농장에서 응용되어서 이용되어 투자에 대한 혜택을 도시 속 농장을 경영하는데 볼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투자한 만큼 펀드

나 주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수익이 도시민들에게도 돌아가게 된다. 이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직접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권도시씨도 교류하고 있는 농촌에 투자 자금을 내놓았었는데 그 지역의 농산물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농가에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로 권도시씨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도시에서도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면서 음식비의 지출이 많이 줄게 되었다는 점이다. 요즘 권도시씨의 식탁에 오르는 밥과 반찬은 대부분이 지난 해 농사를 통해서 수확한 농산물이거나 올해 농사를 통해서 수확한 것들이다. 물론 아직 권도시씨의 농장에서 재배되는 곡물과 채소로 권도시씨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충당하면서 음식비의 지출이 절반으로 줄게 되었다. 즉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써 도시 속에서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권도시씨는 도시 속에서 자신의 직장을 유지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권도시씨는 나이가 들면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농촌으로 내려가서 도시농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대로 농사를 시작해보려고 계획 중이다.

<그림3-3> 거시적 관점에서 본 효과



<그림3-4> 미시적 관점에서 본 효과



다. 도시농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

① 식량 자급력 향상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식량을 농촌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식량 자급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최근 식습관의 변화로 밀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밀의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여 밀의 식량 자급력이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내어놓고 있지만 식량 자급력을 향상시키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진 시킬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도시농업이다.

전반적인 우리나라 식량 작물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경지면적 17,815.79 km^2 에서 우리나라는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¹¹⁾ 이 중에서 경지면적의 25.49 km^2 만이 밀의 재배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¹²⁾ 벼의 재배면적은 9244.71 km^2 에 이른다¹³⁾ 고 밝혀졌다.¹³⁾ 또한 쌀의 국내 생산량은 4680천 톤이며 밀의 국내 생산량은 7천 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쌀의 경우 국내 소비량 5061천 톤에 근접해서 자

11)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본통계’ (2007)

12) 통계청, ‘보리, 밀,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2008)

13) 통계청, ‘2009년 벼, 고추 재배면적 조사결과’ (2009)

급률 92%에 도달하였지만, 밀의 경우 국내 소비량 3337천 톤에 크게 못 미쳐서 자급률 0.2%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¹⁴⁾ 그리고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쌀 생산력이 1km²의 경지에서 약 506 톤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과 평균 밀 생산력이 1km²의 경지에서 약 274 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3-1> 쌀과 밀의 각종 농업 통계자료

	재배면적 (km ²)	국내생산량 (천t)	국내소비량 (천t)	자급률 (%)	1km ² 당 생산력 (t)	비고
쌀	9244.71	4680	5061	92	506.2	
밀	25.49	7	3337	0.2	274.6	

현재 대한민국의 토지 이용률을 조사한 그래프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아래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토지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50,688.67km²의 농림지역에서 17,815.79km²이 실질적인 경지면적으로써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가 경지면적과 유사하게 17,317.26k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¹⁵⁾

<그림3-5> 용도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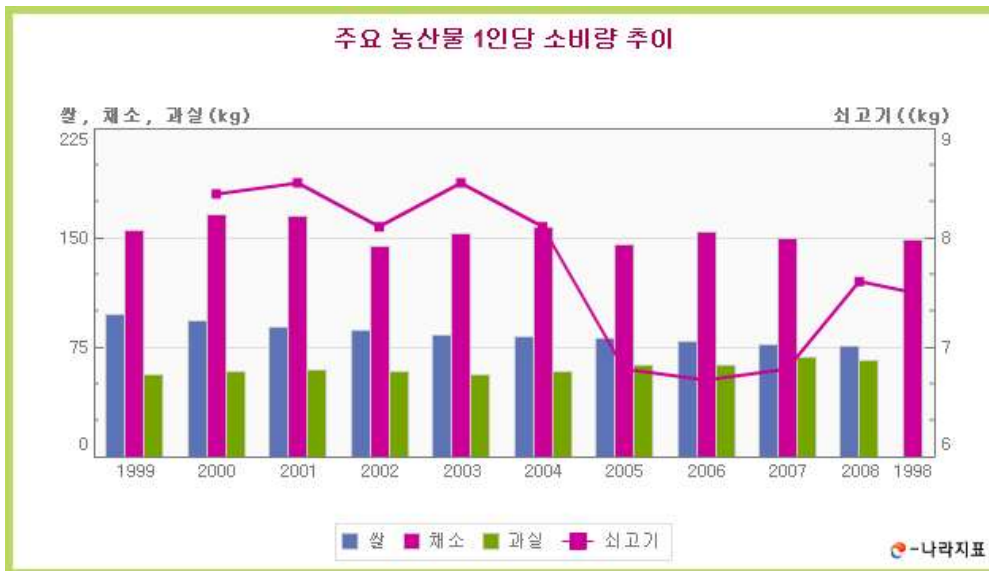
자료 :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 “도시계획현황” (2000, 2007)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식품 자급률 표 (2007)

15)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 ‘도시계획현황’ (2009)

여기서 우리는 도시농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도시에 농장이 조성되면 도심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경지면적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농장을 성공적으로 도입했을 때 현재 도심으로 이용되는 면적의 1/5를 농장으로 조성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3463.4km²에 해당하는 토지가 도시 속에서 농장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벼의 경우 새롭게 태어난 농장에서 약1753.1천 톤을 생산해 낼 수 있고, 밀의 경우 951천 톤을 생산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놀라운 도시의 작물생산력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재배 작물에 대한 도시농장과 농촌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식량 자급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의 1인당 소비량은 1999년도에 96.9 kg에서 2008년 75.8 kg으로 많이 줄었다. 현재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¹⁶⁾이 25.8m²라고 하는데¹⁷⁾ 쌀을 1m²당 0.5kg을 1년에 수확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도시공원 조성 면적에 도시농장을 추가적으로 조성해서 한 사람이 25평(25*3.3=82.5m², 1평=3.3m²)의 땅을 경작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41.25kg의 쌀을 1년에 수확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도시민들의 식량소비량의 54.41% 만큼을 도시농장을 통해서 자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도시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가계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그림3-6> 주요 농산물 1인당 소비량 추이



자료 :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작물통계, 농림수산물부 양곡수급실적 및 계획, 채소류 생산실적 등 (각 년도 조사)

위의 자료들을 통해서 도시농업이 국가적인 면에 있어서나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 식량자급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았다. 물론 도심으로 이용하는 토지

16) 도시공원 조성 면적 :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후 조성된 도시공원 면적

17)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 및 내부자료(도시환경과) (2006)

의 1/5를 도시농장으로 조성하는 일이나 도시민 한 사람이 25평의 농장을 운영을 하는 경우로 가정을 한 것에는 과장을 많이 한 감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도시농장의 식량자급적인 면에 있어서의 효과를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 이었다. 정리를 하면은 식량자급의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 50%에 가깝게 자급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 개인의 가계비 지출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국가적인 면에 있어서의 쌀에서 밀로 변해가는 국민들의 식습관을 개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농장을 통해 식량작물을 충분히 생산하게 되면 식량자급률을 매우 높은 수치로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현상 극복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교육, 금융, 상업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되게 되었다. 결국 기존의 대한민국의 촌락 중심의 사회가 세상의 변화 흐름에 따라 도시 중심의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촌락 중심의 사회의 공간이었던 농촌은 많은 사회적 인프라를 잃은 채로 도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편리하면서도 바쁜 삶보다는 농촌의 평안하고 느긋한 삶을 지향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현재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도시 농업이라는 매개 수단을 이용하여 농촌의 열악한 사회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양극화를 논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사회적 인프라의 차이이다. 산업화 이후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소외 받아 오면서 농촌에는 정책적 지원과 자금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소득의 차이이다. 몇몇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도시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사람보다도 많이 버는 농민들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대부분의 농민들은 영세한 규모의 농장을 경영하면서 평균적으로 도시민들보다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현황 파악 및 도시 농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먼저 사회적 인프라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많은 변

<그림3-7>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현황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 보건 복지 가족 부 “보건복지통계”, 보건 복지 가족 부 “보육시설 및 이용자통계” (각 년도 조사)

화가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수도보급률이 1990년대에만 해도 20%에 못 미칠 정도로 농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너무도 부족하였고 이것은 극심한 문제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이에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시와 농촌간의 상수도 보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시설투자를 집중함에 따라 50%에 육박하는 수치로 급상승했지만 이는 전체 상수도 보급률 평균인 9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 인프라를 말해주는 또 다른 수치인 보육시설과 의료기관의 개수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의료기관수는 1997년 3,050개소에서 2007년 6,857개소로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8~13% 수준으로 정체 상태에 놓여있다.¹⁸⁾ 또한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은 2002년 3,155개소에서 2007년 4,901개소로 증가하여 15.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면지역의 경우 보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도시지역과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의 보육시설은 2007년 25,955개소로써 전국 30,856개소의 84.1%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²⁰⁾ 즉 위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최근 들어 정부에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 및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과 시간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당장 농민들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문제는 정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18)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7)
 19) 농림수산물부, 농촌정책과 (2009)
 20) 농림수산물부 농촌정책과 (2009)

아래 그래프를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1사 1촌 운동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농교류의 상황이 최근 들어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농교류를 통해서 도시에서는 농촌체험을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정신적인 측면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는 일손을 덜거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즉 이런 식의 도농교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림3-8> 도농교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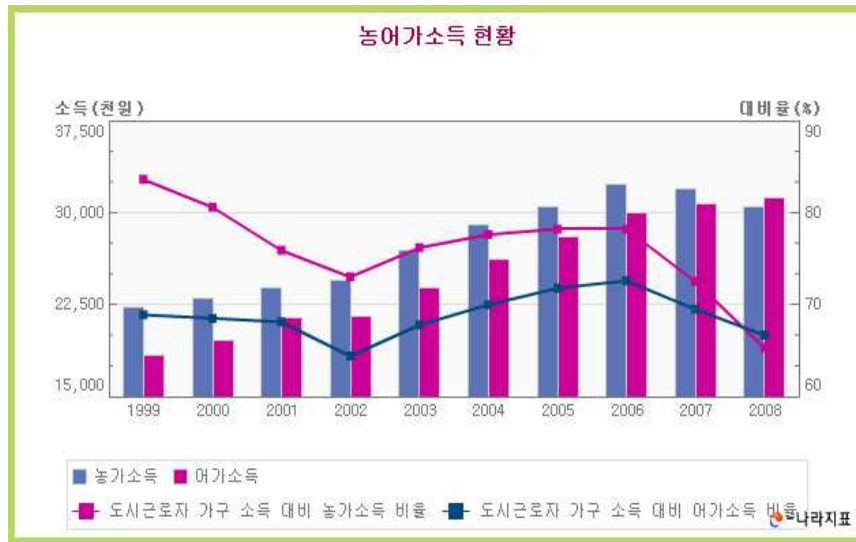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 농협중앙회 (2008)

여기서 이 논문의 주제인 도시농업과 도농교류라는 측면에서 해결방법을 유추해낼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맺게 된다면 도시에서는 농촌에 많은 생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농촌이 도시농장과 관련하여 농업 지식 및 자연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면 도시는 교육과 의료시설과 같은 생활 인프라의 제공을 통해서 농촌이 기본 생활 인프라를 갖추는데 걸리는 긴 시간에 동안에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득이 높고 자본이 많이 있는 도시에서 민간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모든 것을 정부에 맡기던 것에서 민간투자를 통해 농촌의 생활 인프라 완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에 원인이 되는 소득 차이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이 2008년에 65.3%에 이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농민들이 도시근로자보다 소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도시 일자리의 특성상 30대에는 연봉이 낮으며 60대에는 은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

<그림3-9> 농어가소득 현황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어가경제통계” (각 년도 조사)

서는 농민들의 평균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소득이 현저히 낮은 70세 이상 고령농가가 다수포함(30.0%)되어 있기 때문에²¹⁾ 평균이 낮게 나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낮은 소득을 거두는 고령농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령농가와 관련해서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점은 농업의 과잉인구²²⁾라는 문제이다. 70세 이상 고령농가는 결국 농촌에 남아 있게 된 농업의 과잉인구인 셈이고, 즉 농업 총생산에서 농업인구를 나누어서 계산하는 농가의 평균 소득을 매우 낮추게 된다.

농업 과잉인구의 문제 역시 도시와 농촌이 도시농업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교류협정을 맺은 모델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데 농민들에게 도시 속에서 농업에 대한 컨설팅 및 관리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노동력의 부족으로 낮은 생산력을 가지게 되어 결국에는 저소득을 나타내는 고령농가의 농민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농촌의 과잉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과잉인구로 인한 생산부문간의 비합리적인 노동배분을 없앨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농업인구가 농촌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빠져나간 농민들의 토지에 대해 기존의 농민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농업에 있어 취약한 부분인 영세한 규모의 농장을 지금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농장운영을 영농규모화하여서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들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21)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어가경제통계” (각 년도 조사)

22) 농업 과잉인구 :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 노동력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된 노동인구가 농업 세계의 내부에 머물고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현주소와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으로써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현주소를 점수로 평가하자면 10점 만점에 3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도시 속에 도시농장의 수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며 이는 앞으로 도시농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여러 형태의 주말농장과 아파트 인근의 텃밭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낮은 비율로 운영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농사와는 거리를 두고 살고 있다. 물론 서울시에서 추진한 시티 팜이나 인천 송라지구의 빌딩농장과 같은 도시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매우 작은 규모이며 실질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논하자면 농촌에 대한 관심이 적을 것이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생각보다는 높은 비율로 인지를 하고 있었으며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대를 할 수 없는 수치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최근에 농촌이 자연환경적인 공간으로써 각광을 받고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도시농업을 통해서 현재의 도시와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모델이 단순히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에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도시 속에서 일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통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현재 도시와 농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 또한 위에서 도시농업이 이루어진다면 농촌과 도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분석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서 제시하였는데 과장된 점도 있지만 식량자급력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된 도시농업의 현주소를 바탕으로 현재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해보겠다.

첫째,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농업의 특성상 농업은 자연환경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도시의 특성상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인 만큼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 따라서 나라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책적 지원이 없이 도시농업을 추진하게 되면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양립하게 되며, 이것은 도시농업 추진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도시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도시만을 위한 도시농업이 되어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도시 속에 농장을 조성하고 그곳에서 도시민들만을 위한 도시농업을 하게 된다면 당장 이것은 농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농업에 이해관계가 얽힌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욱더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목적아래에 도시농업을 수단으로써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농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에서 많이 홍보하고 알린다고 해서만 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 주도하에 여러 민간기관 및 동호회의 협력 하에 위에서 아래로 강요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분명히 우리가 따를 수 있지만 도시농업이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미래에는 도시민과 농민들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고 누가 농민이고 누가 도시민인가에 관한 구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를 높이고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균형적인 소득을 갖춘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은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강기남·이종근·김기황·이만명, (2007),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건설기술논문집 p.167-176
- 김수봉·조진희·정응호, (2002), “환경 친화적 도시와 도시농업”, 계명대학교 낙동강 환경원, 環境科學論集 p.1-21
- 박석근·황환주, (1996), “서울근교 관광농원 및 주말농장의 원예작물 재배현황과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관광학회, 관광농업연구 p.141-155
- 이동현, (2006), “일본 쌀 산업의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 준비되어 실천한 곳과 이론에 머무르는 곳의 차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 지역과 전망 p.160-176
- 이해경·이시래·서정근, (2000), “주말농장 생활원예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 植物·人間·環境 p.39-46
- 장동헌, (2007), “도시농업의 영농실태와 존속 가능성 모색”,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p.79-102
- 장동헌, (2009), “도시농업 육성의 정책적 함의”,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p.979-994
- 장동헌·소순열, (2005), “도시농업의 경영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 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 p.86-102
- 홍정의, (2004), “서울안의 텃밭”, 현대사진영상학회,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 , p.143-164
- Yoshida. T. (2002)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안철환 역, p.214, p.293

- 한국일보 2009.07.01
- 농민신문 2009.08.28
- 환경건설일보 2009.07.09
- 시민일보 2009.07.12

-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reengrowth.go.kr>)

